

# 本協會 歴代会長団, 太田 会長一行

## 懇 談 會

3월 3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한·일양국건축사회 임원들은 한·일건축사교류촉진각서 서명을 끝

낸 자리에서 상호 관심사를 놓고 간담을 했다.

간담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그런 상황이라 한국에서의 여러가지 제도를 검토해서 그와 같은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식의 제도를 장치고있는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설계가 하나의 영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런점이 20년 30년 거처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공사를 입찰하는데 입찰같은것은 설계자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입찰하지 않으면 좋은데 입찰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현상이 아닙니다.

일본의 현재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이런 문제는 83, 84년도 보다도 심해져서 큰 결론이 나지않을것 같아서 한국의 실상을 조사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복: 일본의 대학에서는 몇명의 건축과 학생이 배출되는지요.

### 건축사시험합격률 12%

太田會長: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수는 1만천명 정도이고 전문대학까지 합하면 2만명입니다. 그중에서 매년 건축사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7만2천명 정도 되는데 합격률은 12% 정도입니다.

일본의 선선행이 주관이 돼서 대개 대학 선생님이나 같은학과, 그 외에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분 4~12명 정도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이런 시험을 위해서 건축기술교육국이 생긴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체로 교육센타가 생긴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결국 민간센타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제도까지 넣어서 한 80명 정도의 선생님이 동원되었습니다.

각 시험은 각 도지부에서도 실시하는데 경쟁률은 40대 1 정도 됩니다.

단지 시험장소나 감독하는것은 건축사협회에서 하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만성: 현재 일본건축사의 회원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町田事務局長: 실질적으로 하고있는 것

### 간담회 참석자

韓 國

회 장 吳雄錫

부회장 金基壽

이 사 金圭泰 金奉勳 金在佑 金享仁 申貞桓 俞景哲 李永熙 林在植

감 사 李康植

전임회장 張起仁 韓昌鎭 李圭福 金萬盛 金斗燮 具琬會 金枝泰

서울지부장 李春相

전임이사 金一榮

국제위원회위원장 宋基德

서울지부간사 趙炳瑄

한국건축가협회부회장 金正澈

중앙대교수 申鉉植

한양대교수 李利衡

日 本

會 長 太田和夫

부 회 장 小野里 光明

사무국장 町田幸一

### 日本에 1.2급 건축사 50만명

太田會長: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실례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건축사에 대한것은 여러가지 질문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오히려 건축사법에 관한 책자를 갖고 싶습니다.

조만간에는 한국의 건축사들이 일본에 많이 방문해주시고 일본의 건축사들이 한국의 건축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에 건축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있고 1급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명이고 2

급건축사 자격증이 있는사람을 합하면 50만명이 됩니다.

건축설계사무소는 등록을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재 건축사사무소는 약 11만곳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설계사무소는 일이 없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건축사의 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건축사의 질을 높여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로 인해서 건축문화에 힘을써야할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支部別 會員懇談會소식

은 단체보험이라든지 장애보험을 각 회원들이 들게끔 해줄것하고 또 그외에도 여러가지 복지 관계는 현재 검토중이며 각 지방의 현재 예산은 스포츠및 기타 여러가지를 건축사 연합회에서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회에 대한 질문은 전체회원에 대한 어떤 건축사연합회에서 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일텐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복지를 할 만큼의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것도 모든 회원이 드는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분만 들고 건축사연합회에서는 권고만하고 있습니다.

구유희: 일본 건축사연합회의 회원수와 체제및 그밖에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太田會長: 일본건축사연합회의 회원은 약 15만명으로 47개 일본의 도에 회원이 있으며 실무적인 지방의 힘은 없습니다. 건축사연합회 회원이 15만명 밖에 안되고 그외의 회원은 여기 들어있지 않기에문에 희망자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에 가입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부담을 하고 자체내에서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그외에 건축설계사무소에 2~3명의 건축사가 있는 적은회사에 있어서는 연합회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크게 다섯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학회, 건축사회, 건축가협회, 건축설계감리협회 그리고 일본건축사무소연합회가 있습니다.

### 일본건축사협회의 문제점

그 외에도 큰 단체를 제외하고 조그만 단체가 또 있습니다.

건축사회는 회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회원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일종의 건축사연합회가 주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협회를 만들 수 있는곳은 건축가협회와 건축사협회입니다.

이것 외에도 설계감리협회, 건축사사무소협회도 있지만 이것은 세계적으로 일본뿐만이 아니라 여러곳에도 있습니다. 일본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약 1천 여명



전남지부 회원 간담회 모습

본회는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할 회원의 의견과, 협회 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할 회원의 의견등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1월 18일 이래 계속 지부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거니와 3월 5일엔 전라북도지부에서, 3월 11일엔 전라남도 지부에서, 4월 13일엔 제주도 지부에서 각각 순회 간담회를 함으로써 순회 간담계획을 모두 마쳤다.

다음은 지부별 순회간담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全羅北道支部

일시: 85년 3월 5일 14:00~17:00  
참석: 회장, 이사2명, 全炯直 전북지부장, 전남지부장, 사무처장 외 15명

### 간담내용요약:

- 회원에 대한 이종처벌규정 폐지요망 행정상 업무정지와 정관규정 제11조규정의 배율성 시정.
- 납원, 정주분소 설치 건의
- 행정의 능률화 건의  
본부 사무기기 현대화및 보고문서의 일원화
- 사무실 관리비의 예산반영

### 全羅南道支部

일시: 85년 3월 6일 10:00~12:30  
참석: 회장, 이사2명, 전북지부장, 趙春元 전남지부장, 사무처장 외 25명

### 간담내용요약:

- 84전남회원 작품전시회 협조요망
- (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정도 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자칭 에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가협회에 입회하게 되는데 열사람 이상 입회추천이 있어야 되며 또 그곳은 입회판정위원회가 있어 판정을 받아야 정식회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칭 자기들은 건축에 대해선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0%는 사업을 뺐거나 또는 어떤 재벌과 연결이되어서 어떤 일을 신

사적으로 따내는것이 아닙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으로 건축사 협회에서 있는 회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축가협회회원이나 건축사협회 회원은 양쪽에 다 가입한 회원이 많습니다.

두 협회는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있지만 이해관계부족으로 서로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건축사협회의 나쁜얘기만 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